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제 2호, 2018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차 례

[섹션 1: 지식과 교육]

■ 이 아람찬 ■

어린이 영화교육의 필요성 7

■ 이 혜 경 ■

1872년 충청도 지도의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24

[섹션 2: 지식과 인문]

■ 정 옥 희 ■

문화인류학의 발전과 교육에 끼친 영향 39

■ 송 석 량 ■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 6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7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88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9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100

Knowledge & Liberal Arts

VOL 2. 2018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Section 1: Knowledge & Education]

|| Lee, Aram-Chan ||

Children's Film Education: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film literacy
..... 7

|| Lee, Hae-Gyeong ||

An artistic Style in *Map of Chungcheong Province* in 1872 24

[Section 2: Knowledge & Humanity]

|| Jeong, Ok-Hee ||

The Effects of the Developing Process of Cultural Anthropology on the
Educational Theories 39

|| Song, Suk-Rang ||

Merleau-Pongty's Philosophy of Nature 67





어린이 영화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영화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이 아람찬(세종대학교)

목차

- I. 어린이 영화교육의 두 양상
- II. 어린이 영화교육의 필요성
- III. 맺음말

I. 어린이 영화교육의 두 양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는 본 지원법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로 하고 있다.¹⁾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영화교육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 학교 영화교육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영화교육에서 벗어나 영화교육의 대상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영화교육은 매년 약 200여 명의 강사가 400여 개의 학교에서 5만여 명의 학생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학교 영화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전문가양성을 위한 영화교육에 치중하고 있던 영화교육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던 것이다. 사실, 전문가양성에만 치중했던 영화교육의 반성과 함께 영화교육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중점학교

영화진흥위원회가 일반 학교에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중점학교 사업목적은 첫째, 청소년의 인성발달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영화교육으로 미래영화관객 개발 및 영화산업 지속성 강화에 두고 있다. 둘째, 2015년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의 미래사회 청소년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영화 리터러시 중심의 영화교육이다. 마지막으로, UNESCO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영화영상 환경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영화교육을 연계하고 있다.

부산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2009년 처음으로 영화 창의도시에 선정된 영국 브래드포드의 경우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로 영화산업과 영화교육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인 곳이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http://www.law.go.kr>).

있다. 브래드포드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영화산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곳으로 유명하고, 작은 규모의 국제영화제 또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대학과 더불어 전문적인 영화교육과 대중적인 영화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²⁾

브래드포드와 비교해서 부산은 규모나 시스템 측면에서 매우 월등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 성장과 다르게 부산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영화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점학교는 이러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공교육에서 정제된 영화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다.

II. 어린이 영화교육의 필요성

1. 학교 영화교육에서 영화 리터러시(Film literacy)

영화교육은 그 대상과 전문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교육내용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영화교육의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들로, 예술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전문성을 배제한 영화교육이다. 이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학교 영화교육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그 범주와 대상을 한정하고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영화 리터러시 개념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지지 않고 저마다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초기 영화 리터러시는 시네리터러시(Cinliteracy)라는 개념으로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영화 리터러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시네리터러시, 필름 리

2) UNESCO, *10 Things to know about Bradford UNESCO City of Film*, 2009, pp. 1-2.

터러시, 그리고 영화 리터러시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변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영화 리터러시 또는 시네리터러시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차이는 바로 리터러시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난다. 리터러시(Literacy)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자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과 이해 능력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리터러시는 글을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쓰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네리터러시를 언급할 때, 영화를 읽는 또는 이해하는 능력에서 멈추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영화 리터러시라고 할 경우, 영화를 보고 감상하는 이해 영역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단계까지 포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화 리터러시는 보고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화나 기타 영상을 제작하는 영역까지 포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네리터러시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 영화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에서 발간한 영화정책 보고서 『교실에서의 영상이미지(Moving Images in the Classroom)』에서 처음 개념화한 것으로 ‘영상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의미’하고 있다.³⁾ 이 당시에만 해도 시네리터러시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영화 제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에는 영화 읽기뿐만 아니라 만들기 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학자인 바바라 클린저(Barbara Klinger)는 자신의 저서에서 시네리터러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네필의 영화 학습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⁴⁾ 즉, 클린저는 시네필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영화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영화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

3) C. Bazalgette (eds), *Moving Images in the Classroom* (London: BFI), 2000, p. 63.

4) Barbara Klinger, "Viewing Heritages and Home Film Cultures," in James Bennett and Tom Brown, *Film and Television After DVD* (London, Routledge), 2008, pp. 26-27.

요한 능력을 시네리터러시라고 밝히고 있다. 클린저 또한 시네리터러시에서 영화 제작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시네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영화를 비롯한 영상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 제작 교육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시네리터러시 개념의 사용보다는 영화 리터러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개념도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다루게 되었다. 이는 영화라는 텍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관련 플랫폼과 콘텐츠를 포함하고 이해와 감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영화 리터러시는 영화 제작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수용 과정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 제작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영화 창의 도시(UNESCO City of Film)인 브래드포드(Bradford) 영화교육팀의 영화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⁵⁾ ‘영화 리터러시는 학생들로 하여금 영화와 영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화를 즐기고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⁶⁾ 그리고 유럽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학교교육 게이트웨이(School Education Gateway)는 영화 리터러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⁷⁾

5) 영화 창의도시는 2009년 영국 브래드포드의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호주 시드니가, 2014년에는 부산과 함께 아일랜드 골웨이, 불가리아 소피아가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2015년에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브라질 산토스,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비톨라가 있으며, 2017년에는 5개의 도시 (중국 칭다오, 영국 브리스톨, 일본 야마가타, 폴란드 우츠)가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총 12개국 13개 도시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창의도시. [http://www.unescobusan.org] 참고.

6) Bradford City of Film.
[https://www.bradford-city-of-film.com/learn/film-literacy/]

7) School Education Gateway.
[https://www.schooleducationgateway.eu/en/pub/latest/news/film-litera

- 영화에 대한 이해 능력
- 다양한 영화를 선택하는 능력
- 영화에 대한 비판적 감상과 분석하는 능력
- 다양한 영상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

여기서 영화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과 범위까지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화교육의 범주와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학교 영화교육의 의미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영화교육의 의미도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관점에서 영화교육 의미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의미를 구분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학교 영화교육의 의미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영화는 아날로그라는 올드미디어에서 출발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뉴미디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콘텐츠에 매우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통적 영화교육	새로운 영화교육
영화감상 교육	다양한 영상미디어를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영화제작 교육	다양한 영상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교육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및 글쓰기
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
시네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의 도입)

[표1] 학교 영화교육의 의미 변화

(1) 영상 플랫폼과 콘텐츠를 포함하는 학교 영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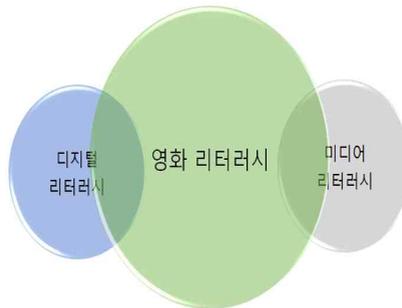
학교 영화교육은 영화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TV, 인터넷, 사진, 광고 등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확장 결국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화와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교육으로서 학교 영화교육



[그림 1]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8)

학교 영화교육은 영화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계로 그 개념의 폭이 넓혀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화교육은 영화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영화 리터러시의 관계도

8) C.Hague and S. Payton, *Digital Literacy Across the Curriculum*, 2010, p. 19.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영화 리터러시는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의 이해와 예술적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3)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학교 영화교육

영화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언급하지 않는 예술적 향유나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영화 리터러시가 다른 두 리터러시와의 차이점이다. 영화교육은 디지털 기술 기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예술적 창작과 향유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적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영화교육의 변별적 지점은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하는 학교 영화교육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생산하는 방식과 만들어진 물건 자체가 지능화되는 방식,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학자 또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빅데이터, 로봇, IoT, 정보통신기술, 융합, 혁신적 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다.⁹⁾

앞서 언급한대로, 영화는 영화사 초기부터 기술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운드의 도입, 칼라영화의 등장, 와이드 스크린의 탄생, 3D 영화의 개발 등 영화적 형식과 재현에 기술적 발전은 영화의 영

9) 정윤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중등 진로 직업교육 방향」, 『서울교육』, 231호에서 재인용.

역을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영화보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반대로 영화적 아이디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학교 영화교육은 영화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영화 감상·제작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체험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폭넓게 영화문화를 향유하는 인간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영화교육은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조력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이다.

3. 학교 영화교육의 필요성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실제 학교 영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 학교 영화교육을 수업의 교보재 활용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하거나 단순 영화감상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1950년대 영국에서 학교 영화교육이 시작한 이후 이러한 편견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프로슈머(Prosumer)와 디지털 시대 학교 영화교육이라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측면에서 그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프로슈머로서의 학교 영화교육

프로슈머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제품 개발과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래 분야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을 살펴보면, 다른 문화예술장르보다 영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장 지출을 많이 한 분야는 영화 관람, 연극(뮤지컬) 관람, 영화 구입 및 대여, 각종 전시회 관람 비용으로 영화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분야 역시 영화 관람 관련 지출이 가장 높았고, 연극(뮤지컬) 관람(38.4%), 연예/콘서트(29.8%), 각종 전시회 관람(26.6%)의 지출을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영화에 대한 소비자로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영화교육을 통해 양방향적인 생산과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바로 이런 프로슈머 관점에서 영화교육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문화예술관련 지출¹⁰⁾

(2) 디지털 시대 학교 영화교육

현재 학생들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개발로 이에 대한 사용과 소비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학교 영화교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체계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게 되었다. 현재 이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영화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Ⅲ. 맺음말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영화교육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정체를 겪고 있다. 실제로 학교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수와 학교 수가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중점학교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디뎠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영화교육을 펼쳐왔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새롭게 시작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이 다양한 층위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특색 있는 영화교육의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영화 텍스트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화교육 시간에 다

10)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41쪽.

를 수 있는 영화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에 따른 전체관람가 영화만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12세 관람가 영화¹¹⁾는 초등학교 6학년 일부 학생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12세 관람가 영화는 초등학교 영화교육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체관람가만을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애니메이션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11)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박수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교육부, 2017.
- 윤 하, 「영국영화진흥사업」, 영화진흥위원회, 2011.
- 윤혜란, 장현선, 김태은,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 이아람찬, 『영화교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임윤희, 「중학교 협력예술활동의 이해」, 『서울교육』, 227호.
- 정윤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중등 진로 직업교육 방향」, 『서울교육』, 231호.
- 정재형·민경원·이아람찬·김선희, 「영화교육 교육표준 연구」, 『모드니 예술』 Vol.7, 2012, 1~23쪽.
- 한국영화학회 영화교육위원회, 「초 중등 영화교육을 위한 기초교육개념 연구」, 2004.
- Bazalgette, C. (eds), *Moving Images in the Classroom*, London: BFI, 2000.
- Hague, C. and Payton, S. *Digital Literacy Across the Curriculum*, 2010.
- Klinger, Barbara. "Viewing Heritages and Home Film Cultures," in James Bennett and Tom Brown, *Film and Television After DVD*, London, Routledge, 2008.
- UNESCO, *10 Things to know about Bradford UNESCO City of Film*, 2009.
[<http://www.unescobusan.org>]
[<https://www.bradford-city-of-film.com/learn/film-literacy/>]
[<https://www.schooleducationgateway.eu/en/pub/latest/news/film-literacy-developing-youn.htm>]
[<http://www.law.go.kr>]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화교육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영화교육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학교교육에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영화교육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적으로 학교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수와 학교 수가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는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파악된다. 한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영화 텍스트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화교육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영화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에 따른 전체관람가 영화만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12세 관람가 영화는 초등학교 6학년 일부 학생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12세 관람가 영화는 초등학교 영화교육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체관람가만을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애니메이션에 한정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주제어 ● 영화교육, 영화 리터러시, 예술교육, 영화진흥위원회, 프로슈머

■ Abstract

Children's Film Education: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film literacy

Lee, Aramchan

This study deals with the necessity of film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the meantime, although film education in Korea started late, it has quickly settled in school education. However, the Korean Academ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s school film education is also experiencing stagnation after more than 10 years.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art instructors and the number of schools conducting film education in schools is not increasing at all.

This is regarded as a structural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increase anymor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budget of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Agency. On the other hand, the biggest difficulty in film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the lack of film text. In other words, there are too few films that can be dealt with during film education.

This is because only the movies can be viewed in general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Video Rating Board. The 12-year-old spectator film is not suitable for use in the elementary

school film education class, because only a few students in 6th grade elementary school. When only the entire audience is used in elementary school, it is often limited to animation.

Keyword ● film education, film literacy, art education, Korean Film Council, prosumer

■ 논문투고일 : 2018.10.14. ■ 심사완료일 : 2018.11.6. ■ 게재확정일 : 2018.11.15.



1872년 충청도지도의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

이 혜 경(혜전대학교)

목차
I. 머리말
II. 산·산맥의 표현
III. 바닷재 처리
IV. 뗏음말

I. 머리말

『1872년 지방지도』는 충청도 52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40장, 전라도 84장, 경상도 104장, 강원도 29장, 황해도 42장, 평안도 85장, 함경도 24장' 등 총 459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회화식(繪畵式) 지도이다. 당시 집권자인 대원군이 병인·신미양요¹⁾를 겪은 후 국방력의 강화를 절실하게 느

1) 병인·신미양요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광성, 「양요(洋擾) 후의 강화도 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6, 1976(박광성, 「양요 후의 강화도 방비책에 대하여」, 『인재박광성교수정년기념논문선집: 한국중세사회와 문화』, 민족문화사, 1991에 재수록); 백종기, 「병인양요에 관한 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12, 1978; 김원모, 「로저스함대의 내침과 어재연의 항전(1871)」, 『동방학지』 29, 1981; 김원모, 「틸톤의 강화도참전수기」, 『동방학지』 31, 1982; 김원모, 「병인일기의 연구」, 『사학지』 17, 1983; 김원모, 「로즈함대의 내침과 양현수의 항전(1866)」, 『동양학』 13, 1983; 김원모, 『근대한미관계사 한미전쟁편-미국의 대한 함포외교를 중심으로-1853~1871』, 철학과현실

긴 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잘 수록되었다. 아울러 『1872년 지방지도』에는 ‘산수와 도로, 유물·유적, 행정과 관련된 시설,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을 보여주는 시장·점(店)’ 등도 상세하고 풍부하게 그려져, 당시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1872년 지방지도』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제작·수합되었으므로 통일적인 제작 및 원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그려지지는 못했다.²⁾ 하지만 각 지방별로 다양한 방법과 기법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후기의 표현 가능한 모든 회화적인 기법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872년 지방지도』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가까운 지역의 지도를 2~3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충청도 지도에서도 52장 중 과반 이상이 전체적인 채색상태와 산맥을 묘사한 기법에서 매우 유사하게 그려졌다.

이런 점에서 충청도 지도는 다른 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제작에 통일성

사, 1992; 양교석, 「병인양요의 일고찰」, 『사충』 29, 1985; 이상태, 「제너럴 서면호 사건과 신미양요」, 『군사』 14, 1987; 서인한, 「丙寅·辛未洋擾史: 民族戰亂史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연갑수,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1997;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임재찬, 「병인양요 이후 지방포군의 증강실태」, 『신라학연구』 5, 2001; 이민식, 『근대한미관계사』, 백산자료집, 2001;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서면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역사비평사, 2005; 서태원, 「병인 신미양요 후 진무영의 포군 강화와 심도포량미」,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인천지역 재정사 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근대한국외교문서 제1권-제너럴 서면호 사건-병인양요』,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정명섭·신효승·이노우에 히로미·최민석, 『조선전쟁 생중계-500년 역사를 뒤흔든 10반의 전투-』, 북하우스 2011; 황원갑,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바움, 2011; 『근대제국과 만난 인천-충돌과 변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글로벌콘텐츠, 2013; 김용구, 『약탈제국주의와 한반도-세계외교사 흐름 속의 병인 신미양요-』, 원(이보란), 2013; 박병선, 『프랑스인이 기록한 병인양요 2-1866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2013; 문일평,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2016; 이경수, 『강화도사』, 역사공간, 2016; 이형구,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새녘출판사, 2017 등이 참고가 된다.

2) 규장각, 『1872년 지방지도』, 총설, 1998.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³⁾ 많은 양의 지도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은 지도 제작에 앞서 기준이 되는 지도인 범본(範本)을 본 뒤 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청도 지도에 대해 첫째 산·산맥의 표현 및 채색 방법을 살펴보고, 둘째 바탕재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타도와 구별되는 충청도 지도의 특성을 파악해보려 한다.

II. 산·산맥의 표현

충청도 지도에서는 산과 산맥의 표현은 둥근 능선을 먹선으로 그려 기준선을 그리고, 농묵으로 선을 반복해서 면을 채우듯 봉우리를 강조하며 알레빗을 연상케 하는 반원 형태의 산을 연이어 그려 산맥을 표현했다. 채색은 대자색과 쪽색 등으로 근경과 원경의 구분 없이 같은 색으로 산을 칠했다. 일반적인 산수화에서 산의 크기와 농담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강약과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전통 산수화에서 산을 그릴 때 구사하는 ‘피마준(披麻皴), 부벽준((斧劈皴), 절대준(折帶皴), 미점준(米點皴) 등의 표현은 충청도의 일부 지도에서 볼 수 있으나, 그 수가 적다. 대부분 크고 작은 둥근 언덕 모양을 패턴화하여 연이어 그려 산맥을 표현했다. 그리고 1개 혹은 2개의 붓으로 면을 채우듯 사선 혹은 수직으로 선을 긋거나, 거칠고 뺏뺏한 붓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산봉우리에서 산 아래로 끌어내리듯 선을 촘촘히 그었다. 이러한 표현법은 산과 산맥이 큰 기호처럼 인식되고 화면을 단순화함으로써, 지도에서 다른 정보를 읽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산과 산맥이 읍치(邑治)를 부각시키기 위해 큰 울타리 형태로 그려졌거나 또는 지역을 구분하는 칸막이로 인식됨으로써, 강줄기와 도

3) 오상학, 「해설」, 『조선후기 지방지도』-충청도편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31쪽.

로는 물론이고 각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의 채색은 전라도가 청록산수 표현에 석록·석청 등의 화려한 무기 안료 사용이 많았던 것에 비해, 충청도의 경우는 무기안료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수묵담채로 채색하거나 유기안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산의 채색은 충청도는 전라도와 달리 석록·석청 등 화려한 무기 안료가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수묵담채(水墨淡彩)로 채색하거나 대자색(岱赭色)을 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로 결성현과 덕산군 지도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성현과 덕산군 지도는 바다와 강줄기와 산맥들이 진한 색으로 과장되게 그렸고, 같은 모양의 산들이 평평한 땅 위에 모형처럼 놓여 있다는 점에서 동일인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은 진한 농묵으로 얇은 선을 반복해 긋는 방법으로 산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린 점, 진한 색으로 산과 강줄기를 채색한 방법, '진한 강물 색, 뚜렷한 산, 붉은 선의 도로'가 명쾌하게 시야에 들어오는 점 등에서도 그러하다.

두 지도의 제작 과정에서 산과 산맥의 표현 즉 채색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지도의 크기를 정한 테두리 선을 그린 후 구극법(鉤勒法)으로 강줄기 선을 그리고 쪽과 먹색을 사용하여 진하게 여러 번 칠했다. 산은 작은 붓을 이용하여 농묵(濃墨)으로 촘촘하게 선을 긋고, 산의 윗부분에 더 많

은 선을 쌓듯이 중첩하여 봉우리를 더 진하게 강조했다. 먹 선이 완전히 마른 후 대자색 혹은 먹과 쪽을 섞은 색으로 산봉우리에서 산 아래까지 능담의 변화가 없이 같은 색으로 칠함으로써, 산맥과 산이 명료하게 시야에 들어오게 하였다.

다음으로 산의 채색이 마른 후 무기 안료인 주사(朱砂)와 유기 안료인 연지(臙脂)의 붉은 색으로 도로를 표시하고, 이어서 지명과 거리 정보를 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청양현과 홍주 지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양현과 홍주 지도 역시 부감법에 의한 시점(視點)이 같고, 화면 전체가 진하고 거친 선으로 능선을 따라 빠른 속도의 선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같은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산세의 묘사는, '강, 도로, 건물'을 그리기 위한 공간 분할의 역할 정도로 생각되며, 강줄기를 그린 선도 필력이 없고 거리에 따른 선의 강약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화원이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 즉 '산수화 표현 기법들이 보이지 않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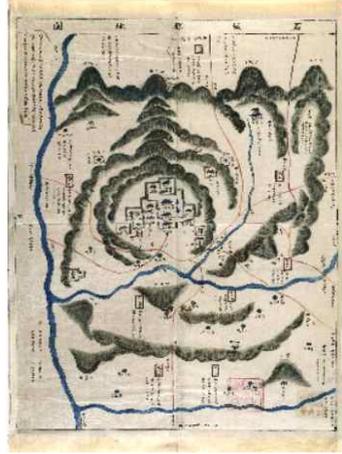
운필의 미숙한 점, 시점의 혼재' 등을 감안하면, '지방화원, 행정담당자, 지관' 등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지역의 관아 건물들과 홍주 성안 일반인 초가 가옥은 선 하나하나에 시간을 들여 정성껏 그린 모습이 보인다. 단정하게 칠해진 관아 건물의 지붕은 먹으로 채색되었고, 벽면은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초가 가옥의 색은 등황으로 담(淡)하게 칠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수의 실경 감상을 겸한 지도 제작이 아닌, 행정정보를 위한 지도 제작이 주요한 목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아산현, 석성현, 홍산현' 지도를 살펴보자.

4) 조선후기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화원들과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이훈상, 「조선 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 2008 이 참고가 된다.



아산현



석성현



홍산현

‘아산현, 석성현, 홍산현’ 지도의 산과 산맥 표현은 마치 풍수도를 보듯 관아 건물들을 화면의 중심으로 잡고 그 주변을 감싸듯 산맥을 겹겹이 그

렸다. 실경을 객관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관적인 산맥의 형세를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봉우리가 둥근 산을 연이어 그렸고 강줄기를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지도를 펼치면 '진한 색의 산, 짙은 색으로 칠해진 강, 관아건물'이 눈에 들어오며, 산과 강줄기의 단순한 표현이 관아 건물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아산현 지도를 보면 진한 쪽빛의 바다가 매우 시원하고 힘차게 보인다. 산의 표현은 짧은 선을 반복하여 봉우리부터 산 아래까지 그어 호랑이 털을 그린 듯하다. 산맥의 채색은 여러 번 겹쳐 칠하고 봉우리를 더욱 강조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도로는 산과 산맥의 크기와 형태보다 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붉고 굵은 선으로 그려졌다. 산과 건물이 여러 방향으로 그려진 이유는, 지도 제작자가 걷는 그리고 바라본 방향에 따라 그려졌으므로 다시점(多視點)으로 보인다. 한편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관아 건물의 위치, 도로 상황, 지역 간의 거리 정보'인데, 관아 건물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빙 둘러싼 산맥의 아래쪽을 점차로 흐려지게 하여 시각적으로 건물들이 먼저 눈에 들도록 표현했다.

석성현 지도는 부감법으로 화면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다. 화면 중앙에 가장 중요한 관아 건물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둥글게 에워싸듯 산맥을 그려 마치 꽃이 활짝 핀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산의 표현은 뺏뺏한 붓으로 일정하게 산의 형태를 먹선으로 채우고, 쪽·대자·등황(橙黃) 등을 섞어 산 전체를 두세 번 나누어 초록빛 산으로 그려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관아 건물의 지붕과 강줄기는 쪽을 그리고 도로의 붉은 선은 무기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산현 지도는 산맥을 강조하듯 작고 큰 산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관아를 중심으로 산맥을 따라 산이 이어지고 산맥 사이에 큰 강줄기를 그려 넣었다. 둥글게 선을 따라 그려진 산들은, 충청도 대부분 지도처럼 작은 선의 붓질로 털을 그리듯 산 전체를 채우고 먹과 대자색으로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산에는 무수히 많은 길고 짧은 선을 그려 넣고 갈색빛 대자

색으로 칠하여, 언뜻 보아서는 마치 호랑이가 있는 듯 보이는 재미있는 표현법으로 산맥을 그린 것이 흥미롭다. 지도마다 도로와 관청의 기둥은 붉은 색의 주사나 연단 혹은 연지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72년 충청도 지도가 제작될 시기는 전통 안료 외에 외국 안료가 수입되어 사용된 예가 다른 회화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흑 분석이 어려운 안료가 사용된 지도가 있다. 때문에 그림에 사용된 안료 중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앞으로 안료 분석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Ⅲ. 바탕재 처리

충청도 지도의 바탕재는 표면이 단단하고 번짐이 적고, 채색에 물고임 흔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침(搗砒)과 교반수 처리가 잘 되어있는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채색상태는 색이 칠해진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는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어 밀도와 표면 평활도(平滑度)를 높이고 표면에 교반수를 칠해 채색과 먹이 번지는 것을 막는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종이 표면에 처리를 하지 않고 그린다면, 먹선과 채색 면들이 불규칙하게 번져서 뚜렷하게 정보를 읽기가 어려워진다.

도침이 잘 된 종이는 매우 견고해지고 투명도 역시 높아진다. 그리고 표면이 매끄러워 붓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가 편해지므로 채색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도 쉬워진다. 도침 후 아교와 명반을 섞은 교반수를 알맞은 농도로 칠하면 먹 번짐과 채색 때 물의 번짐을 막을 수 있고, 교반수는 안료를 표면에 잡아주므로 두꺼운 채색화도 가능케 한다. 지도는 많은 정보를 제한된 지면에 넣어야 하는 특성상 도침과 교반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작은 글씨도 번지지 않고 쓸 수 있으므로, 조선 후기 지도에는 도침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대흥군과

부여현 지도에 잘 나타난다.



대흥군과 부여현의 부분 지도를 살펴보면, 채색면과 바탕재 경계가 뚜렷하고 여러 번 겹쳐 칠한 듯 보이나 색 번짐이 없다. 담묵으로 칠해진 산 부분에도 붓 자국이 보이지 않으며, 물 고임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도침이 되어 있고, 교반수가 칠해졌을 때 보이는 현상이다. 아울러 아래의 영동현과 제천현 지도에서도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동현



제천현

영동현 부분도를 보면 농묵의 거친 선위에 담묵으로 산의 형태를 그렸다. 붓으로 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국이 없이 일정하게 칠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제천현의 경우, 산맥 채색에 여러 번 칠한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역시 중첩 채색 때 나타나는 붓 자국이 없고, 연못과 강줄기의 푸른색도 매끄럽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번 종이를 두드려 섬유 조직의 밀도와 평활성을 높이고, 먹과 채색을 번지지 않게 도침 처리와 교반수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충청도 지도에서는 산과 산맥의 표현은 둥근 능선을 먹선으로 그려 기준선을 그리고, 농묵으로 선을 반복해서 면을 채우듯 봉우리를 강조하며 열레빗을 연상케 하는 반원 형태의 산을 연이어 그려 산맥을 표현했다. 채색은 대자색과 쪽색 등으로 근경과 원경의 구분 없이 같은 색으로 산을 칠했다. 일반적인 산수화에서 산의 크기와 농담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강약과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산과 산맥이 큰 기호처럼 인식되고 화면을 단순화함으로써 지도에서 다른 정보를 읽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으며, 산과 산맥이 읍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큰 울타리 형태로 그려졌거나 또는 지역을 구분하는 칸막이로 인식됨으로써 강줄기와 도로는 물론이고 각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충청도 지도는 산맥의 채색도 먹으로 거칠게 굵고 담묵으로 혹은 유기안료를 사용하여 담채로 칠했다. 지도를 펴는 순간 무채색에 가까운 산 표현보다는 쪽색으로 과장되게 그려진 강줄기와 유기염료를 사용하여 붉은 선으로 표시한 도로가 눈에 들어온다.

충청도 지도는 산맥의 표현에는 소홀한 측면이 엿보이고, 청록산수의 산 표현과 다양한 색으로 지명을 기재한 전라도 지도에 비해 매우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충청도 지도에서는 '행정관청의 위치 및 정치·경제·지리 등의 변화가 시각적으로 잘 들어온다. 따라서 충청도 지도는 행정적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이라는 지도의 필수요소를 잘 표현했다 할 수 있는데, 화려한 회화적인 표현이 오히려 정보를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도의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 충청도 지도의 회화적 기술력은 다소 떨어져 보이는데, 중앙에서 파견된 화원에 의해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지방화원, 행정담당자, 지관' 등이 그렸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 참고문헌

- 규장각, 『1872년 지방지도』, 총설, 1998.
-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근대한국외교문서 제1권-제너럴 셔먼호 사건·병인양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셔먼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역사비평사, 2005.
- 김원모, 『근대한미관계사 한미전쟁편-미국의 대한 함포외교를 중심으로 -1853~1871』, 철학과 현실사, 1992.
- 문일평,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2016.
- 박광성, 「양요(洋擾) 후의 강화도 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6, 1976.
- 박병선, 『프랑스인이 기록한 병인양요 2. 1866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2013.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서인한, 「丙寅·辛未洋擾史: 民族戰亂史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 서태원, 「병인·신미양요 후 진무영의 포군 강화와 심도포량미」,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인천지역 재정사 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 양교석, 「병인양요의 일고찰」, 『사총』 29, 1985.
-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 오상학, 「해설」, 『조선후기 지방지도』-충청도편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 이상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군사』 14, 1987.
-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 2008.

■ 국문초록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후기의 표현 가능한 모든 회화적인 기법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1872년 지방지도』는 한 사람이 가까운 지역의 지도를 2~3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52장 중 과반 이상이 전체적인 채색상태와 산맥을 묘사한 기법에서 매우 유사하게 그려졌다.

이런 점에서 충청도 지도는 다른 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제작에 통일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충청도 지도는 행정적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이라는 지도의 필수요소를 잘 표현했는데 이는 화려한 회화적인 표현이 오히려 정보를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 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충청도 지도에 나타난 산·산맥의 표현 및 채색 방법과 바탕재의 처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충청도 지도만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충청도 지도, 지방지도, 바탕재, 표현기법

■ Abstract

An artistic Style in Map of Chungcheong
Province in 1872

Lee, Haegyeong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way of expressing and coloring mountains and mountains on *the map of Chungcheong-do*, and the treatment of background materials. *The 1872 chungcheong local map* i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all the pictorial techniques that can be express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map answered the purpose of provid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was a good representation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map: information provision.

Keyword ● *The 1872 chungcheong local map*, Background materials,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ictorial techniques

■ 논문투고일 : 2018.10.12. ■ 심사완료일 : 2018.11.10 ■ 게재확정일 : 2018.11.17



문화인류학의 발전과 교육에 미친 영향

정 옥 희(목원대학교)

목차

- I. 들어가며
- II. 문화인류학의 출현 배경
- III. 문화와 퍼스넬리티론: 심리인류학의 발전
- IV. 신진화주의와 문화유물론의 등장: 문화상대주의
- V. 문화인류학 발전과 교육이론의 영향
- VI. 맺음말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문화와 개인의 관계에 둘러싼 논쟁으로 이루어진 인류학의 발전을 탐구한다. 개인의 심리인류학을 거쳐 문화상대주의 관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에 미친 영향을 찾고자 한다. 문화와 개인의 관계를 초점으로 심리인류학이 발전되고, 신진화주의에 거쳐 문화유물론을 주장한 마르크스 철학을 통해 문화인류학의 토대가 된 미국 인류학의 발전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개인과 문화의 관계 속에서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보아스(Boas) 이후 문화 개념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 미드(Mead)에 의해 완성된 문화인류학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여 교육의 관점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는데 목적을 둔다.

II. 문화인류학의 출현 배경

1. 미국 인류학의 발전

‘미개’와 ‘서구문명’의 단선적인 역사 발전을 믿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각 사회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문화의 역사적 특수성을 주장한 지점부터 문화인류학이 시작된다. 그 시작은 사회와 개인의 심리를 별개로 분리하여 사회차원의 인류학으로 사회인류학을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문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는 개인을 초월한 독자적인 것으로 유기체를 초월한다고 주장하면서 아프리카 미개부족의 인류학적 조사로 입증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미국 인류학의 1세대인 크뢰버가 개인과 문화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런 주장들은 문화상대주의를 탄생시키면서 문화인류학을 심리학과 문화의 개념 간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사회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두 갈래 이론이 정립된다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2017).

독일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던 보아스(Franz Boas, 1858~1942)는 1883년에 바필랜드(Baffinland)로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미개인(sevages)”을 접했는데, 이것은 물리학과 지리학을 공부하는 보아스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다. 이 경험으로 그는 인

류학자로 전환했으며, 보아스의 “상대주의(relativism)”가 테일러(Tylor)의 “절대주의(absolutism)”와 어떻게 대립되는지는 그의 마필랜드 여행기록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미개인들”이 상식적으로 모두 빈곤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들을 가져와서 모두가 마시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관습이 아닌가? 나는 스스로에게 우리의 “훌륭한 사회”가 도대체 그 “미개인”들이 소유한 그 이상으로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들의 관습을 알면 알수록 나는 우리를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할 권리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 중 어디서 그런 진실된 접대를 받겠는가? 여기서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어떤 불만도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꺼이 수행한다. 우리에게는 경멸스럽게 보일지도 모르는 미신적인 형식과 행위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없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전통과 오래된 관습에 대한 공포는 인류에 깊이 박혀있는 것이며 삶을 합법화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진보를 정지시킨다. 나는 모든 개인과 사람들이 전통을 포기하고 진실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믿는다. 내 주위에는 Eskimo인들이 날로된 바다표범의 간을 입에 가득 물고 있다(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는 이 종의 뒤에 붉은 얼룩들이 증명해보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 중요한 여행의 성과는 “문화화된” 인간은 단지 상대적일뿐이라는 사고와 인간의 가치는 그의 *herzensbildung* (“마음의 교육”)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여기 에스키모인들과의 사이에도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들끼리의 관계처럼. 사람이 인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달건 쓰건 간에 진실로 향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공허 속에 살고 있다고 진실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정말로 그 차가운 에스키모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한상복 외 2017, 54).

그는 최초의 현장 연구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와 1886년에 다시 현장 연구를 시작했다. 3년 후 그의 연구가 미국에 받아들여졌고 그로부터 미국 인류학이 완전히 지배적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무비판적이고 사변적인 비교 방법의 사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는 “미개인”을 열등한 인간으로 가능한 가깝게 만들기를 시도했던 천박한 인종주의가 존재하던 시기였다. 모든 것이 단계별로 배열되고 항상 서구유럽사회와 민주주의로 행해가도 있었다. 사실적인 측면이 없이 허구적으로 가장 난폭한 사변가들을 찬미했고, 인류학을 모든 것과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천진난만하게 설명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환원했다. 현장연구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인류학적 탐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성실하고 인내심 있게 민족지학적 사실들을 수집하고자 했던 보아스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과도한 억지에 대한 신선한 반응이었다.

인류학은 하나의 과학으로서, 또 실제로 대학 교과목으로서조차도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았었다. 따라서 청중이 듣든지 말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과 문화에 대한 그들의 관점들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 때 「미국의 인류학자들」이라는 기초적인 인류학 저널은 이런 비학문적이고 상상적인 과정의 많은 예들을 신고 있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에 기초한 보아스의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과학적 인류학”의 아버지로 보게 했다. 조심스러운 양적 데이터에 기초한 물리적 인류학이라는 그의 혁신적인 연구는 이전의 인류학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급진적인 우월감과 급진적 결정주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들을 해체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초기 에스키모인들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지리적 결정론

(지형이 문화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사고)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미국 인류학에 절충주의를 도입하게 만들었다.

이런 절충주의는 그의 학생들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향들을 전개하도록 해주었다. 그의 유명한 글 「인류학의 비교방법의 한계(The Limitations of Comparative Method of Anthropology)」(1896)에서 보아스는 진화론자들에 의해 표현되었던 일률적인 변화에 대한 사고를 공격했다(한상복 외 2017). 그는 비록 문화의 어떤 측면들 - 샤머니즘, 활과 화살, 가면(유령) - 이 세계에 널리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똑같은 진화의 과정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의 주된 특성이 보편적이고 최소한 많은 고립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런 동일한 특성들이 동일한 이유로 항상 발전되어 왔을 거라는 가정에 의해 해석되었고 모든 곳에서 어떤 인류가 발전함에 의해 하나의 위대한 체제가 존재하며,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은 이런 위대한 단일한 진화에 있어 최소한의 미세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져온다(한상복 외 2017, 56).

테일러와 다른 진보주의자들의 관점이 함축하는 것은 하나의 평행선상의 진화였다. 하나의 문화 패턴이 만약에 둘 혹은 그 이상의 장소에서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원인과 과정들로부터 나온 평행선상의 발달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정신분석학과의 만남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변화시켰던 보아스의 제자 사피어(Sapir)는 시인이자,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의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가졌으며 문화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1917년에 이미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학식을 지닌 그는 여러 글을 썼는데, 용의 「심리학적 유형」을 읽고 비평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는 정신병리학자인 설리반(Sullivan)과 함께 일하면서 인류학과 정신병리학과와의 교섭에서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상호간의 지적 자극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문화의 역사적 특수성을 주장한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인 보아스의 현지 조사에 참여했던 미드(Mead, M)는 개인의 퍼스넬리티의 형성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세 미개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이라는 저서에서 남여가 특유하다고 간주되는 기질의 차이는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했다. 미드는 마누스 섬을 1928~64년 동안 세 번 방문을 했는데, 그 목적은 “경제, 정치제도, 신념, 종교, 세계관의 변화는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퍼스넬리티를 어떻게 변모시키는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는 문화에 대한 강조를 사회화와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문화화에 대한 주장을 통해 그의 생각을 펼쳐갔다.

보아스의 후임으로 1937년 부임한 린튼(Linton, R. 1883~1953)은 콜롬비아 대학 세미나라고 부르는 공동연구를 뉴욕 정신분석연구소의 카디너(Kardiner, A. 1891~1981)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드가 문화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한 반면, 개인의 심리구조는 문화에 어떻게 투영되는가 하는 반대 방향의 고찰을 행하고 개인과 문화의 관계에 처음으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체계적이고도 명확한 형태로 적용하여 하나의 이론적 틀을 수립했다.

심리학과 문화의 개념간의 관계 연구는 말리노브스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어 언어인류학자 에드워드 사피어(Sapir, E.)의 퍼스넬

리티에서 인간 개개인과 그 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속한 문화를 습득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고, 이런 관심은 정신분석학의 영향으로 루드 베네딕트(Benedict, R.)와 마가렛 미드(Mead, M., 1978)가 선조가 되었던 ‘문화와 퍼스넬리티론’을 탄생시켰으며, 심리인류학으로 발전한다.

Ⅲ. 문화와 퍼스넬리티론: 심리인류학으로 발전

1960년대 새로운 움직임으로 퍼스넬리티라는 개념이 개인과 사회, 문화의 일생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을 가르키는데, 일반적으로 불변하는 그 어떤 실체인양 다루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수(Hsu, F. L. K., 1972)가 「심리인류학 - 문화와 퍼스넬리티로의 접근」을 편집 출간하면서 ‘퍼스넬리티’라는 단어를 피하고 ‘심리인류학’이라는 용어를 ‘문화와 퍼스넬리티’분야를 가르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창하게 된다.

‘문화와 퍼스넬리티’론이 오랫동안 핵심 개념으로 사용해 온 ‘퍼스넬리티’, ‘문화’를 각각의 독자적인 통일체로 다루는 종래의 이론 틀에 의문을 던지며, 심리인류학은 특정 문화의 문백 속에 있는 개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퍼스넬리티의 역동성(인간으로서의 욕구)이 문화, 사회 체계 전체의 유지 및 변화에 담당하는 역할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와 퍼스넬리티’ 이론자들의 주된 작업은 개인의 인격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이제 달성되었으며 인류학자가 해야 할 다음 작업은 문화 혹은 사회 전체의 운용 유지는 개별 성원들이 그 체계를 어떻게 내면화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다고 제안했다.

인류학은 원래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달했지만, 그곳 사람들의 심리 과정, 학습, 지각, 지적 발달 등으로까지 관심이 확산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수의 제안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심리인류학이라는 학명이 포괄하는 영역은 확대되어 ‘문화와 퍼스넬리티’라는 분야는 그 일부가 되었다.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에 이(異)문화 간 심리학 및 이문화간 인지 연구 등의 테마가 실리고, 1973년 Ethos라는 개인 심리와 사회적 환경의 상호 관계를 주제영역으로 하는 잡지가 발간되었으며 「심리인류학」이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책도 나왔으며, 1978년 미국인류학의 하부조직인 ‘심리인류학회’가 발족되었다.

문화와 퍼스넬리티의 연구를 행동적 측면과 결합한 화이팅의 이론과 달리 인지적 과정에 더 집중했던 Anthony F. C. Wallace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문화의 문제 해결 특성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행동방식들은 사회의 개인 구성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정신병, 퍼스넬리티 특성들의 분포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실상 이 연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측면이 중요했던 진화론적 접근이었던 전통적인 문화와 퍼스넬리티 이론의 결실이었다.

베네딕트 이후 1961년 당시까지 문화와 퍼스넬리티 이론은 문화가 퍼스넬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둔 반면에, Spiro는 『사회제도, 퍼스넬리티, 기능분석』이라는 책에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과정의 규범들로 변모”하는 이론을 제안하게 되었다. Spiro는 인간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뿐 만 아니라 의미의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고 “현실세계”로 생각되는 것도 대부분 집단의 언어 관습에 의해 규정된 관념의 세계라고 밝혔다. 이것은 인지인류학 연구의 영역이지만 문화가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해명하는 것으로 말레노위스키의 기능주의 이론의 가장 단순한

형태였다.

스피로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인간의 존재의 전형은 생물학적인 욕구, 사회생활에서 시종일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룹의 욕구, 생물학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전되는 감정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행동 패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적 주장은 말레노위스키의 기능주의를 초월하여 개인의 행동을 문화와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시도하는 심리인류학의 가장 박식한 학문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문화와 퍼스넬리티 간의 교량적 관계를 시도한 수많은 이론가들이 있었으며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글들도 다량 쏟아져 나왔다(Barnard, A. 2000).

IV. 신진화주의와 문화유물론의 등장: 문화상대주의

1. 신진화주의와 보편 진화론

미국의 인류학자들 중 문화 퍼스넬리티 이론과 사회인류학 모두를 거절하고 진화론의 과학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인류학자들도 있었다. 이들이 신진화주의자들과 일컬어지게 된다. 보아스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류학교수로 취임 후 40년간 인류학자를 양성했고 인류학자 거의 모두가 그의 제자로서 당시 미국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 전문적인 인류학자들로 자리를 잡았다.

보아스를 비롯한 당시 인류학자들은 모든 사회는 동일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19세기 후반 단선 진화주의 이론을 호되게 비판하였고 20세기 초의 전파주의 이론도 또한 공격했다. 보아스는 현지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의 특징 및 테마는 항상 특정 문화 전

체의 문맥 속에서 위치하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기록하는 작업에 매달려서 민족지 데이터의 해석과 일반화에 매달렸다. 그러나 체계적인 어떤 이론도 정립하지 않았으며 타일러와 모건의 진화이론을 부정하는데 매달렸다. 이러한 반진화주의적 이론은 문화상대주의적 보아스의 입장만이 아니라 말레노 위스키(Bronislaw K. Malinowski, 1884~1942)와 레드클리프-브라운(Alfred R. Radcliffe-Brown, 1881~1955)의 기능주의 인류학자들이 미국의 시카고와 예일 대학에 강의를 맡으며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인류학계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레드클리프 브라운의 사회인류학은 민화, 종교, 의례, 무기, 신관념 등 개별 문화요소가 그들이 처해 있는 문맥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요소와의 관련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용된 개별적인 진화도식상에 배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진화주의적 경향을 미국에 전파했다. 따라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인류학에서는 정밀한 유형론이 존재했지만 그것을 진화 혹은 역사적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던 반면, 미국인류학계에서는 신진화주의라는 학과가 성립이 되었다.

스튜어드(Steward, J. 1955/2007)는 문화와 문화의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생태학을 강조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신세계와 구세계의 문명을 비교한 후 지역과 시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측에는 일관된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유사성의 발견된다고 말한다. 이 유사성은 생태학적 조건이 서로 비슷한 점, 또한 그런 생태학적 조건 속에서 개발 기술이 유사한데서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화생태학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자원개발과 생산 기술과 환경의 상호관계가 분석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특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에 사용되는 행동의 패턴이 분석되어야 한다. 세 번째의 마지막 과정은 환경을 개발하는데 수반되는 행동 패턴이 문화

의 또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술환경적 요소를 어떤 종류의 행동패턴과 관계와 결합하고 또 다른 문화적 측면과의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이론이었다. 문화인류학을 생태학 혹은 기술환경적인 특성의 강조를 기본으로 두는 그의 이론은 Leslie White의 문화학과 Marvin Harris의 문화 유물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문화 유물론과 진화 인류학

19세기 당시 진화주의 인류학은 자연 상태의 실태 및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논리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해명하려는 학문이었지만 자연상태→사회상태라는 대관념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농후했고 이런 문제의식은 봉건적 분립 상태를 극복하여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려했던 당시 정치상의 논쟁점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19세기 진화인류학은 대부분 자민족 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며, 서구 세계를 정점으로 인류사의 단편적이고 보편적인 거대 이론을 구상했다. 이 이론은 비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사회조직과 이데올로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만나게 된다. 19세기의 진화론으로 모건의 친족 호칭으로 혼인관계를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원시난혼 및 집단혼 등으로 보편적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공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치를 점하였다.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적인 주장은 모건의 진화론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인류학에서 사멸된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

타났다. 이는 인류학과 마르크스주의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기본 구조인 물질적 생활의 생산 방식이 사회문화적 생활의 사회, 정치, 종교적인 측면의 일반적인 특성을 결정짓는다는 이슈에 초점을 두고 문화학과 문화생태학의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면서도 그것들이 관념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의 기본적인 환경적이고 환경기술적인 즉 물질적 특성들의 견지에서 문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문화물질주의에 대한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인류학에서의 수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가장 좋은 보기로 '인도의 신성시되는 소'를 들어 설명한다. 「인도의 신성시되는 소에 대한 문화생태학」이라는 글에서 그는 신성시되는 소를 기술환경적 토대로 접근한다면, 힌두의 사상은 그것과 거의 관련이 없거나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소의 존재는 순수하게 생태학적 혹은 기술환경적 설명의 견지에서 받을 경작하고 우유, 가죽, 비료와 같은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원이었다. 따라서 이는 인도의 생태계에 부정적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앞서 그가 주장했던 환경기술적인 요소의 우연적인 중요성과 이데올로기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의 이런 주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힌두의 사상이 인도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즉 종교에 대한 이전의 이론들과는 대조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는 내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인간의 공포나 근심을 해소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서로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생태학적이고 유물론적인 접근방식은 인간, 그들의 관념, 그리고 환경사이의

어떤 피드백들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V. 문화인류학의 발전과 교육이론의 영향

1. 통계학의 도입과 행동주의 심리학적 수법

민족지 기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인격 구조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추출된 퍼스넬리티가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던 인류학자들은 점차 심리테스트의 도입으로 ‘기본적 인격구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심리학자 코러 듀보아(Dubois, C. 1903~)의 1937~39년에 걸친 알로르섬에서의 현지조사에서의 통상적인 민족지적 테이타외에 8명의 생활사, 37명의 로르샤하 프로토콜, 플로티우스 미로 검사 및 언어 연상 검사 결과, 아동들의 그림을 가지고 돌아와서 카디너의 민족지 자료에서 분석한 생활사의 결과와 일치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심리테스트의 도입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계학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퍼스넬리티 타입은 ‘모드(mode)’를 빌어 “modal personality”라고 지칭하였으며,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 모달 퍼스넬리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 심리테스트를 사용하게 되었다.

헬로웰(Hallowell, A. I., 1892~1974)은 문화변용 속에서 개인 퍼스넬리티의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심리 테스트를 사용해서 문화변용이 일어나 자기 문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건전한 퍼스넬리티의 형성이 저해되어 문제 행동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얻었다. 또한 정신분석학은 미국 특유의 행동주의와

결합되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도출된 엄밀한 데이터의 수집방법을 채용했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컴퓨터를 통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오게 된다. 즉 카디너의 이론은 화이팅(John W. M. Whiting)의 통계적인 상호문화 간의 연구와 학습 이론의 결합으로 그것의 결합이 보장된다.

2. 통계적인 상호문화연구와 학습이론의 결합

primary institutions → personality type → secondary institutions

위의 카디너의 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동시대의 학자 하바드 대학 교수 화이팅(Whiting, J. W. M., 1964)의 생각과 결합되게 된다. 그의 연구는 카디너의 심리학과 인류학의 접근에 따라서 통계적인 상호문화 간의 연구와 학습 이론을 결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카디너가 제1차 제도와 제2차 제도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제1차제도의 존재로 정의했던 것에 대해 설명이 미흡했던 결합을 보충해 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maintenance systems → child-training practices → personality variable → projective systems

카디너의 이론이 아이를 기르는 것과 빈곤, 경제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제1차제도로 몽땅그려 독단적으로 취급해버린 반면에, 화이팅의 연구는 아이를 기르는 관행을 제도의 유지로부터 분리시키고 보장(보육)제도는 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직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즉 보장제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양식, 주거, 보호를 위한 기

본적인 관습이며 아동을 양육하는 관행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부양제도를 기본적인 테크노 환경의 특징(technoenvironmental features)으로 볼 수 있다. 테크노 환경 특징들이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기초적이며 유동적인 설명이라는 믿음은 유물론적 입장의 핵심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 화이팅의 연구가 비록 문화와 퍼스넬리티이론을 표제로 고려되었던 것이었지만 문화생태학과 문화유물론과 같이 심리학적인 입장을 다소 벗어나는 이론들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이상한 사회와 (maintenance system) 그 여성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들이는 시간과 유형(child-rearing), 이에 따라 초래되는 퍼스넬리티 유형(personality variable), 그들의 초자연적인(종교, 신화, 예술 같은 믿음) 것들의 특징(projective system)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잠자리의 평균온도를 아이의 양육과 퍼스넬리티와 종교와 같은 제도(projective system)와의 연관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접근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기능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논리와 어긋나는 것이지만 화이팅(Whiting, L. A. 1973)은 이것을 “문화특질”이나 “문화패턴”이라고 하기보다 “관습”이라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특질과 문화패턴은 비행동적인 아이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화를 행동으로 정의해서 인공물들과 명확하게 분리한다. 따라서 그가 비록 문화를 행동으로 보고 문화 유물론자들과는 구별되긴 하지만 인류학자들이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을 연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현상들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인 퍼스넬리티와 프로젝트티브 제도들(예술, 종교, 의식, 미신) 등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인류학에 사용한다. 이런 그

의 관심과 주장은 문화에 대한 행동적 정의와 인지적 정의로 인류학의 이론적인 접근을 가져왔다. 문화의 개념의 행동적 정의는 어떤 사회그룹의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하고 특정 그룹의 사람들과 연관된 행동 패턴들로 “관습”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연관된다. 문화의 개념의 인지적 정의는 행동을 배제한 사고와 신념, 지식으로 제한한다. 화이팅은 문화의 개념을 인지적 정의와 행동적 정의 모두를 수용한다.

이러한 화이팅(Whiting, L. A. 1973)의 문화개념에 대한 행동적 인지적 정의의 결합은 문화생태학과 다른 이론들로 이어져 1963년 또 다른 방식의 문화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성립하게 된다. 행동적 정의의 측면에서의 발달(유물론자 헤리스는 인지적 측면을 배제하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문화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생태학, 경제학, 사회정치적 조직들을 아이를 기르는 매개자의 행동에 중요한 매개요소라고 보았으며 아이의 행동을 아동의 퍼스넬리티의 지표로 보았으며, 성인의 행동과 신념과 가치를 성인 퍼스넬리티의 지표로 보았다.

이런 주장의 우연적인 관계는 달같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문제와 유사한 논쟁들로 이어졌다. 이런 화이팅의 이론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발달하였고 후에 LeVine가 『문화, 행동, 그리고 퍼스넬리티』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 다른 문화현상뿐 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과 의식에 관한 연구와 더 깊은 공헌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정신분석학 이론과 인류학과의 관계를 더 보장하게 하는 것이었다.

3. 조작적인 환경과 인지적 환경: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

문화는 단순히 행동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인간의 행동은 단순하게 기술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은 인간은 그들이 관련되지

않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미스터리한 게임에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신분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도 인류문화의 진화와 발명, 전수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연구가들에 의해 단순히 기술환경적인 요소들만이 사회조직과 이데올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 도전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아르놀드(Arnold)를 거쳐 테일러, 보아스, 말리노위스키, 베네딕트(Benedict), 스투어드, 화이트, 헤리스와 같은 인류학자들은 적어도 문화에 대한 개념이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스튜어드는 문화생태학에 대해 말했는데 그는 전체적인 환경의 유기주의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저 생태학이지만 이것을 인간에 대한 것으로 접근했을 때는 문화생태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은 문화지형학으로 그리고 헤리스에 이르러 문화유물론으로 설명되어왔다. 이것은 다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동 능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레파포트(Rappaport, 1968)의 환경에 대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조작적인 환경은 관찰과 측정 가능한 경험적 사건과 물질적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며 인지적인 환경은 경험적인 수단에 의해 보여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영성과 같은 요소로서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학자들에게 조작적인 환경은 물질적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설명이며,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인지적 환경은 그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것으로 행위자들에게 기능을 하는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관계들로 ‘기호’라고 칭하는 것과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로 행동으로의 안내를 제공하고 현실과 일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행동에 대한 물질적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알아내며 그것을 수용하는 적합한 기준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emic과 etic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설명되는데 헤리스(Harris, M. 1968)의 관점은 emic한 진술로 사람들이 스스로 행위자에 의해 지각된 의미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며 etic한 진술은 누구의 의미가 비슷한 조작들에 사용하는 독립적인 연구자에 의해 타당화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다. 관찰된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들의 진실과 거짓에 관계되는 것만을 믿지 않는다.

살펴본 대로 문화인류학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형성론 내지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과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되어왔고 마르크스주의 측에서는 새로운 연구성과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듯하고 모건과 엥겔스의 그릇된 가설군을 고집함으로써 인류학자가 사회주의권의 민족지 자료를 이용할 경우 환원조작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960년대부터 인류학적 자료의 재검토로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아래 고들리에, 프리드만, 알튀세의 구조주의이론을 구축하고 '마르크스주의 인류학과'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모건-엥겔스의 그릇된 가설에 대한 부분도 민족지적 지식에 적합한 다선적 해석을 가지고 논쟁의 종지부를 가져왔고 인류학 이론들에 대한 왕성한 수용의 자세를 보였다. 또한 폴라니의 영향아래 종래 상부조직으로 간주되었던 친족조직 등이 지닌 경제적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레비스트로스와 알튀세의 영향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의 해명을 지향하여 생산관계 및 상부구조 등 각 레벨의 구조 간의 집합관계, 여러 생산 관계의 공존 양식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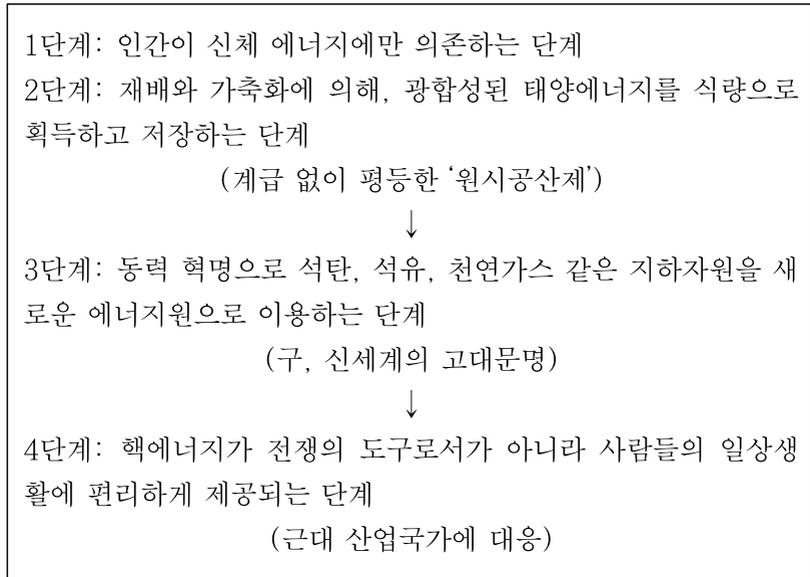
이들의 논의에서의 혼란도 있고 민족지적인 면에서 생산적이라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에의 착목, 위신제, 사회적 교환의 증시 등 주목할 만한 이론적 공헌이 교육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반영되어 1960년대 미국에서 다문화교육의 발현으로 이어졌다.

4. 진화론적 교육 체제 구축

말레노위스키와 레드클리프-브라운과 같이 화이트는 문화를 사회로 보기보다는 과학으로 보았으며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환원주의에 심하게 반대했다. 문화의 개념을 포기하고 크뢰버의 초유기체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문화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문화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재와는 독립적인 다른 측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이트는 문화를 문화와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같은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어서 피해야 하며, 문화는 문화의 견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존재는 문화적 전통의 계승자이며 인간의 재능과 관계없이 모든 것은 문화적 과정과 상관되는 것으로 본다. 문화는 실제로 정신적인 것을 벗어나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며, 화이트는 “문화진화의 기존 법칙”이라 불리는 문화진화론을 주장했다. 그는 문화진화론에 대한 모건과 타일러의 입장을 이어받았다. 이것은 후에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이론과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19세기 진화론과 구분되는 것은 기술체계속의 에너지 사용량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화이트의 문화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문화는 인간이 자연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응의 메카니즘으로서 자연계의 에너지를 포착하여 그것을 사회집단의 존속과 향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인류는 적응, 진화해왔다고 본다. 에너지를 포착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문화진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화이트의 문화진화의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특정지역 및 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집합적 경험으로 보편문화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인류문화는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며 그것이 개별 환경 속에서 어떤 지방적 변이를 나타내는가는 인류학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신진화주의자들은 문화 진화를 일반 진화, 특수 진화로 구별하여 선행세대가 다루지 않았던 정치 조직에 관한 일반 진화의 이론을 구상했다. 특수진화론(스튜어드의 이론)은 세계 여러 문화는 각자의 환경 -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 즉 사회 환경도 포함하는 전체 환경에 적응키 위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수화한다. 환경이 변하면 문화도 낡은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

만약 어떤 문화가 다른 환경으로 확대, 분산해 가면, 마치 생물 진

화의 계통 발생처럼 문화는 적응 변화를 통해 다양화하여 새로운 형태가 낡은 형태로 분화해 간다. 이 입장에서 보면, 문화는 그 환경이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다른 한 편이 다른 편보다 더 진화했다고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 문화와 서남 아시아 건조 지대의 유목민 문화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진화하였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개별환경에의 적응을 기준 삼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지표를 세워 문화들을 하위에서 상위에 이르는 정향 진화의 여러 단계로 배열할 수 있다. 문화진화의 사회문화적 통합 수준으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친족과 혼인에 의한 가족적 유대 - 채집 및 수렵 무리와 같은 비교적 작고 단순한 사회만을 통합할 수 있다.

2단계: 주거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비 자연적 연대 - 몇 개의 무리 사회를 하나의 부족으로 통합할 수 있다.

3단계: 생산의 전문 특수화, 생산물의 재분배 및 그와 관련된 권위의 중앙 집중화 - 수장 사회 같은 보다 복잡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

4단계: 국가 -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제에 의해 통합화가 진전된다.

5단계: 산업사회 - 국가 기구 및 상호의존적 분업 네트워크에 의해 통합된다.

진화론적 믿음으로 인류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유물론적 해석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미개 사회의 경제와 교환에 최대의 관심을 쏟았는데, 이 때문에 레비스트로우스의 구조주의와 교환론에도 자극을 받았다. 화이트의 기술 환경결정론은 종래 진화주의자들이 경시해왔던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진화론주의 견해가 이단이 아니라 차츰 인류학적 사고에서 상식의 일부로 자리잡도록 하였으며 진화주의의 아성을 구축하였다. 이런 진화론적 인류학연구는 현대 공교육에서 교육과정을 인지발달단계로 계급화와 계층화를 통해 단계별 다수의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다 높은 단계로의 진화를 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VI. 맺음말

교육에서 인류학의 도입은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이었고 실제로 문화인류학은 문화와 그 전승에 대한 인류학적 지식들을 식민지의 원주민 교육이나 미술에서의 소수 민족과 이민의 교육을 다루는 교육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미국의 보아스, 미드, 화이팅 등의 교육적인 자료 수집을 약간 포함시키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나 이는 실제로 교육과 인류학의 결합으로 교육인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인류학이 행동주의에서 문화와 퍼스넬리티론 연구로 심리인류학으로 발전하면서 문화인류학의 출현은 교육에서의 학습이론의 연구와 함께 문화 상대주의론으로 확대되면서 그 발전을 함께 한

다.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인류학의 출현은 신진화주의자와 문화유물론과 함께 “실제 비서구 사회의 사람들과 소수민족, 이민, 하층계급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학습 능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한 노력”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인류학을 성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Ogbu, 1985; 이용숙, 2008).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류학이 교육학의 발전과 함께 신진화주의자와 문화유물론의 영향 속에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문화 속에서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교육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 교육인류학의 태동을 가져왔음을 알게 해준다. 문화인류학의 발전이 미친 교육의 변화된 관점은 우리자신의 문화에 관한 당연한 믿음을 낫설게 선택된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당연한 믿음 속에서 교육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김영찬(1982). *생활, 문화,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숙(2008). 한국 교육인류학 연구의 발전과 성과.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문화인류학반세기*. 서울: 도서출판 소화. 270-307.
-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2017). *문화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Barnard, A. (2000). *History and theory in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우영 역(2003).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서울: 한길사.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su, F. L. K., (1972).(2nd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Schenkman Hutchinson, G. E.
- Mead, M. (1978). *Blackberry winter: My earlier years*. New York: Morrow. 강신표, 김봉영 역(1980).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마가렛 미드, 나의 인류학적 자서전*. 서울: 문음사.
- Ogbu, J. U.(1985). *Anthropology of education*.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Oxford, N. Y.: Pergamon Press.
- Rappaport, R., (1968). *Pigs for the ancestors: Ritual in the ecology of a New Guinea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eward, J.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조승연 역. (줄리안 스투어드의 문화변동론: 문화생태학과 다선진화방법론. 서울: 민속원. 2007.
- White, L. A.(1973). *The concept of culture*.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 이문웅 역(1977). *문화의 개념: 문화 결정론과 문화진화론의 입장*. 서울: 일지사.

Whiting, J. W. & Irvin, L.(1953).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hiting, J. W.(1964). Effects of climate on certain cultural practices, In W. H. Goodenough(ed.). Explorations in cultural anthropology: Essay in honor of Goere P. Murdock. New York: McGraw-Hill. 511-544.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와 개인의 관계에 둘러싼 논쟁으로 이루어진 인류학의 발전을 탐구한다. 문화와 개인의 관계를 초점으로 문화와 퍼스넬리티론이 심리인류학으로 발전되고, 신진화주의와 문화유물론을 주장한 마르크스철학의 영향은 문화인류학의 토대가 되어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이론에 미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은 교육학의 발전과 함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문화 속에서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교육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 교육인류학의 태동을 가져왔음을 알게 해준다. 문화인류학의 발전이 교육에 미친 영향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에 관한 당연한 믿음 속에서 선택된 지식과 정보가 교육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개인과 문화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문화적 믿음을 낫설게 함으로써 교육의 방향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문화인류학, 퍼스넬리티, 신진화주의, 문화상대주의

■ Abstract

The Effects of the Developing Process of Cultural Anthropology on the Educational Theories

Jeong, Ok-Hee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anthropology which consists of arguments over cultural and individual relationships. We can find influences of the educational theory by looking at the series of courses that develop culture and personality theory into psychological anthropology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influence of neo-evolutionist and cultural materialist Marxist philosophy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cultural anthropology leading to the perspective of cultural relativism.

In other words, cultural anthropolog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edagogy, has brought about the beginning of educational anthropology to explore education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by allowing us to look into ou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from a cultural relativistic point of view. The changed view of education,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provides insight into how unfamiliar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chosen to translate our natural beliefs about culture into education. This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what education seek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culture in the wide

지식과 교양 제2호

perspective of anthropology.

Keyword ● Cultural anthropology, Personality, Neo-evolutionism, Cultural relativism

■ 논문투고일 : 2018.10.4. ■ 심사완료일 : 2018.11.7. ■ 게재확정일 : 2018.11.12.

■ 서평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

Ted Toadvine, *Merleau-Ponty's Philosophy of Nature*,
Evanston, Illinois: North Western Univ. Press, 2010.

송석량(목원대학교)

I

환경은 이 시대가 직면한 긴박한 이슈다. '생태학적 철학'의 환경윤리는 이 이슈에 대한 새로이 주장된 담론이다. 하지만 이 담론이 말처럼 정말로 대안의 환경윤리를 가능케 할 철학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감각주의' 내지 '생명주의'의 환경윤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휴머니즘의 폭력성을 먼저 도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생태론적 철학'의 핵심난제로 지목되는 사안, 즉 "인간의 자유와 창조능력에 대한 간과" 및 "도덕적 다원주의의 인본주의적 한계"를 해소할 자연의 개념을 달리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태학적 철학이 우선 고려해야할 것이 생태계에서의 '사물'과 '인간' 관계의 모호성, 정확히 말하자면 '연속과 단절'의 이중성을 입증해줄 자연의 본질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문제는 자연의 그러한 본질을 나타낼 자연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있다.

우리가 복구 보존할 자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만일 인간성이 자연에 내재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라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초월성은 어떻게 그 자연적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테드 토드빈(T. Todvin)은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Merleau-Ponty's Philosophy of Nature*, Evanston, Illinois: North Western Univ. Press, 2010)이라는 책을 통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사유체계를 따라 명쾌히 답한다.

생태학적 철학 이전의 현대 환경 철학이 취했던 자연 개념은 '과학적 실증주의'(scientific positivism)에 무비판적으로 근거해 있으며, 이로 인해 그것은 두 개의 대립적인 접근들, 즉 경험론적 실재론과 구성주의적 관념론으로 분열된 형국을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이론들은 인간성의 자연 내재성과 초월성의 이중성의 한 측면에 환원적으로 집중된 까닭에, 자연에 대해 인간이 갖는 내재성과 초월성의 역동적 긴장관계를 포착하거나 담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든 모호성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II

이 책이 기꺼운 것은 자연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견해에 대한 명료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그 해석을 통해 오늘날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되어버린 자연과 인간의 공존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이 제출된 철학, 즉 생태학적 철학 혹은 생태페미니즘의 온전한 논리 구축에 기여할 하나의 유력한 메시지가 또렷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장(chapter)로 구성되어 있다.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의 전개 발전에서 보이는 주요계기들에 대해 그의 주요저작들을 관통하며 구성한 각 챕터의 내용을 테드 토드빈은 다음의 의미로 개괄한다.

(1) “형태와 멜로디로서의 자연”(nature as gestalt and melody): 첫 장의 이 주제는 메를로퐁티의 첫 저작인 『행동의 구조』(*The Structure of Behavior*)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그의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의 초석이 된다. 그 책에서 메를로퐁티는 물질과 생명과 마음이 전일적이고 합리적인 의미에서, “계층적으로 중첩된 형태들”(hierarchically nested gestalts or configuration)로 기술한 바 있다. 이로써 자연의 총체란 물질과 생명, 그리고 마음의 구조들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관계들의 자기 유기적 구성체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경험적 형태로서의 자연관은 자연과학적 실재론이 말하는 자연관을 넘어서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근원적 연속성을 존재론적으로 정립한다.

자연으로 구성된 그 형태들은 살아있는 지각적 의식을 자신 내부에 들어있는 상호 연관성의 계기로 갖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메를로퐁티는 그 형태 통합의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서 지성적 의식의 우위를 승인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자연철학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초기 접근에서 근본적인 긴장이 나타나며, 이 긴장은 지각적인 의식과 지성적인 의식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 이로 인해 문제는 지적 반성의 인식론적 우위와 나란히 지각적 의식의 존재론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있게 된다. 비록 『행동의 구조』가 그러한 근본 긴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났지만, 메를로퐁티는 생명과 사유의 관계를 특징짓기 위해서 멜로디라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는 방법론적 전회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확히 말해 이 전회의 제시는 자연을 기술하는 반성의 자리를 자연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자연 형태들의 일원으로서 위치시켜야 한다는 철학사적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과학적 객관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형태에 대한 “예술적 혹은 선율적 표현”(artistic or melodic expression)을 향한 의식의 목적론을 대안

으로 제시하게 된다.

(2) “근원적 반성과 사물들의 저항”(radical reflection and the resistance of things)을 다룬 두 번째 장은 메를로퐁티의 주저 『지각의 현상학』 (*Phenomenology of Perception*)이 말하는 “반성의 표현적 역할”을 주제로 취함으로써, 앞에서 논급한 메를로퐁티의 『행동의 구조』에 “선율적 표현”으로서 제시된 자연의 개념을 구체화 한다. 여기서 자연은 신체적 대화에서의 우리 인간의 “대담자”(interlocutor)로서 이야기된다. 하지만 지각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既述)을 통해 전개된 이 견해는 다음의 두 난점에 직면한다.

첫째, 이 자연에 대한 그 기술의 견해는 자연을 인간화된 현상으로 환원하는 위험, 즉 “지각된 것”[자연]의 자율성과 초월성을 제거하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둘째, 우리의 몸은 “의명적인 것”으로서 반성적 주체의 인격적 자아와 분리된 “자연적 자아”(natural self)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성이 어떻게 세계 속에 담겨있는 몸의 전(前)반성적인 순간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반성의 이중화 혹은 근본화 형태를 취한다. 근본적 반성은 자신의 원초적 과거를,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전 반성적인 삶(이 삶으로 인해 근본적 반성은 반성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을 고려한다. 그러한 반성은 반성하는 어떤 것과의 부합을 추구하는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창조적 표현의 작용”에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반성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물론 반성적 표현을 통해 정확히 밝혀지는 “우리들의 인간화에 대한 저항이나 무관심”을 본질적으로 승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창조적 혹은 근본적 본성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그러한 설명은 존재론의 수준에서 여전히 애매성을 띤다. 요컨대,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이야기된 “몸의 지각적 대화”와 “반성적 사고”의 연속성은 다음의 사실을 가리킨다. 즉 반성은 자연 자신의 내

부에서 떠오르는 어떤 표현적 순간을 “강화하는 것”(intensification)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반성은 동시에 “침묵의 코기토”(tacit cogito), 즉 인간의 자유와 객관성을 위한 내면의 공간을 여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 균열로부터 떠오르는 것으로 기술된다.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이 존재론적 모호성은 그런 까닭으로 인해 반성 자체를 위한 근거, 즉 “자연의 자기전개”(nature’s own self-unfolding)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3) 동물성(animality)이라는 표제가 붙은 셋째 장은 『행동의 구조』에서 논급된 비인간(nonhuman)의 삶에 대한 주제적 탐구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테드 토드빈에 따르면 비인간의 동물에 대한 이 책의 논급은 지각과 지적 의식, 즉 생명과 사유 사이의 긴장에 의해 다음의 두 내용으로 갈라진다.

첫째, 메를로퐁티는 동물적인 삶과 인간적 반성 사이의 존재론적 연속성을 그 둘을 형태 관계에서의 다른 정도들로 다루며 인지한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외적 친족성은 자연 속에 있는 구조적 형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의 인간실존으로 인해 오히려 나타나지 못한다. 인간은 동물적인 삶을 보다 복잡한 질서 속으로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변형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간과 동물적 생명 사이의 공유점이 없다. 메를로퐁티의 이러한 존재론적 균열의 반향의 근본원인은 인간 반성에 대한 인간중심주의 우위 태도에서 찾아진다. 즉, 동물적 삶을 포괄하는 자연적 존재의 연속성을 과열하는 관점이 그 존재론적 균열의 근본원인이 된다. 이후 후기의 저작들에서 보이는 “인간-동물”의 관계에 대한 숙고는 그 균열의 봉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인간의 반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취함으로써 가능케 된다. 테드 토드빈은 이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다음의 결론적 해석을 도출한다. 즉 “이제 메를로퐁티에서 “반성의 특

성”(reflectivity)은 더 이상 인간주체의의 힘도, 암묵적 코기토의 자동감응(auto-affection)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존재 고유의 자기 물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메를로퐁티는 후기에 이르러 행한 자연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인간-동물의 “상호 얽힘 관계”(intertwining)를 이야기한다.

인간과 동물 간 친족의 얽힘 관계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와 객관성을 자연과 불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생명과 정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유의 심화다. 메를로퐁티는 “정신의 몸”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이 신체적 상황에 잠겨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살(flesh)의 존재론”이다.

(4) 메를로퐁티는 전후기의 궤적(『지각의 현상학』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통해 공간과 장소의 지향성에 대해 새로운 이해지평을 제공하며 “본래의 공간”(arche-spacing)을 제시했다.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 넷째 장에서 이야기된 본래의 공간은 다음의 두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 표현은 인간주체의 생산물이 아니라 메를로퐁티가 화가 세잔(P. Cézanne)의 작품론을 통해 논증했듯이 몸과 세계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회화를 두고 예술론 「세잔의 회의」(le Doute de Cézanne)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세잔이 회화 속 [자연의]사물들에게 부여한 ‘의미’는 세잔자신에게 나타나는 세계 안에서 세잔자신에게 ‘스스로를 내맡긴’(se proposait) 바의 ‘의미’다. 세잔이 한 일은 그러니까 단지 그러한 의미를 해방시킨 작업이었다. 오히려 그가 그리기 위해 보았던 사물들이 그에게 스스로를 내보이며 그려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며, 세잔은 자연의 사물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자신의 회화로서 말했을 따름이다.”(*Sens et Non Sens*, Paris: Editions Nagel, 1948, p.35) 세잔에서 그러하듯 이제 표현은 몸과 함께 그리고 몸을 통해서 자연의 행위라는 새로운 지향성이

된다.

둘째, 이러한 지향성에 주어지는 근원적 공간은 표현의 열망 속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스스로를 표명하는 의미가 된다. 메를로퐁티가 후기 저작에서 키아즘(chiasma)을 말했을 때, 이는 존재하는 것들에 내재해 있는 공간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공간성은 자연 자체가 갖고 있는 ‘차이의 표현적 놀이’(expressive play of differences)로서 규정된다.

(5) 메를로퐁티는 자연 내부에서 스스로 성립하는 자기 표현적 운동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혹은 자연에 대한 “비-주관적인”(a-subjective) 접근을 통해 해명한다. 전통의 형이상학들이 말하는 자연개념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관계’를 ‘탈(脫)근대의 형이상학적 논리로써 드러내며 ‘생태학적 철학’의 난제를 돌파할 자연철학을 존재론적 표현의 상징주의를 통해 펼쳐보였던 그의 이 해명이 지금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중심주의’와 ‘허약한 탈(脫)인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생태학적 철학, 달리 말하자면 “생태-현상학”(eco-phenomenology)으로 전용될 때 나타날 환경윤리의 진정성 때문이다.

앞의 논의들을 생태-현상학적 논리로 선명히 수렴하기 위해 다섯째 장은 “키아즘”(chiasm)의 개념을 통해 감각과 감각할 수 있는 것의 교차 내지 얽힘 관계의 개념에 대한 직접적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키아즘은 메를로퐁티의 후기 존재론의 요체인 인간과 자연의 본래적 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다. 테드 토드빈은 이 말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을 통해 자연은 주체 이전의 인간이 “정신의 몸”으로 사물과 함께 빛는 의미 층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상징임을 정확히 드러낸다.

요컨대, 메를로퐁티가 철학(현상학)을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표현으로 기술했을 때, 그는 우리들에게 자연의 자기표현 노력과 단절하지 않는 우리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했다. 이 사유

를 통해 메를로퐁티는 “자연의 인간되기”(becoming-human)와 “인간의 자연되기”(becoming-nature)를 포착했다. 현대 환경 윤리의 난제라 했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연속과 단절”의 이중성을 해소할 자연의 본질이 “자연의 인간되기와 인간의 자연되기가” 실현되는 공간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며 상징으로 존재하는 자연”이라는 점을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통해 입증해낸 테드 토드빈의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은 환경윤리의 새 길을 모색하는 시대의 훌륭한 지침, 생태학적 환경철학(생태-현상학)의 한 전형이 될 수 있다.

III

환경윤리의 현안이 ‘인간중심의 세계관’에 든 폭력성을 극복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극복을 가능하게 해줄 자연철학이 적어도 이념의 수준에서 먼저 있어야 한다. 근대 [나아가 근대로 수렴된 전통]을 돌파하는 “탈근대의 비(非)인간주의 논리로 빚어질 이때의 자연철학은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존재/인식’이론적 관점의 재정립을 통과해야할 것인데, 이는 종래의 환경철학을 대체하며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윤리를 가리킬 생태학적 철학의 논리와 직통한다.

근대의 철학, 그러니까 이성 중심주의 철학의 자연관에 입각한 새 환경윤리의 모색은 물론 가능하며, 실제로도 ‘경험론적 실재론’과 ‘구성주의적 관념론’의 자리에서 환경윤리의 유력한 담론이 환경철학의 부단한 자기수정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모호성을 명료히 설명하지 못하는 만큼, 그 생산의 결과가 전자[자연]에 대한 후자[인간]의 폭력을 승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철학을 생태학 혹은 생태론적 수준으로 급진화할 수 있는 자연철학이라면, 분명 그것은 종래의 계몽주의적 환경윤리(관리주의) 이

후의 대안으로 제출된 ‘감각주의’ 내지 ‘생명주의’적 환경윤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휴머니즘의 폭력성을 도려낼 실질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선 “그대로의 자연을 이르는 생태”가 “인간이 형성해가는 자연을 이르는 환경”의 근원으로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선 그 자리가 술한 이들이 ‘생태론적 철학’의 난제로 지목하는 사안, 즉 “인간의 자유와 창조능력에 대한 간과” 및 “도덕적 다원주의의 인본주의적 한계”를 해소할 자연철학의 자리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존중의 환경철학에서 생태존중의 환경철학으로의 이행>의 관건이라 했던 자연철학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생태계에서의 ‘사물’과 ‘인간’ 관계의 모호성, 정확히 말하자면 ‘연속과 단절’의 이중성을 입증해줄 ‘자연의 본질’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이 경우, 문제는 자연의 그러한 본질로 접근하는 자연철학의 내용이 될 것인데, 테드 토드빈의 『메를로퐁티의 자연철학』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내재된 그 내용의 진상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이 무엇이기에 대해 선명히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함께 빛는 표현으로서의 상징이다. 이 상징의 자연이 보존될 때 우리는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하는 인간의 역사성을 달리, 그러나 더 건강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인간과 사물이 교감하는 “본래의 공간”은 언뜻 비의(秘意)의 공간 같아 보이지만, 그 공간이 가리키는 것은 환상의 신비와 무관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반성이 ‘정신의 몸’을 통해 사물과 함께 빛는 표현의 의미가 곧 ‘자연’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 ‘자연’의 표현에 참여한 체험의 논리들이 서로에 섞여드는 대화의 장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 해소의 길을 찾아 더 나은 문화를 생산하며 더 바른 역사로 뻗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구하고 보분해야 할 자연은 인간과 단절된 추상의 관념적 공간

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갖는 우리가 "정신의 몸"으로 속해있는 자연, 그 삶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연은 테드 토드빈이 남겨놓은 실천적 과제, 이를테면 우리의 자연 초월적 반성의 인간주의적 욕망을 지우는 사유가 만들어낼 환경윤리를 통해 복구,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투고일: 2018.10.17. ■ 심사완료일: 2018.11.10 ■ 게재확정일: 2018.11.19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

고할 수 있다.

-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liberalarts.mokwon.ac.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6조 6항 참조)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 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땀)
-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I. II. III.....(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Michael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Liberal Arts and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

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 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지식과 교양>홈페이지(kl.mokwo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 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 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

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 현승훈

◇ 편집위원장 : 서정일

◇ 편집 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서
유석(경상대), 송석량(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정옥희(목원대), 최혜진
(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18년 11월 30일 / 30 November 2018

통권 제2호 / Vol.2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042-829-8198
kl@mokwon.ac.kr
<http://kl.mokwon.ac.kr>

인쇄처 씨앤피
042-824-0701